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17 (지극한 근심에)	512 (주여 우리는 지금)	170 (자애로운 예수)	123 (십자가 지고 가시는)

제 1독서 | 예레미야 31,31-34

화답송 |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 (좌)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우)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좌)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

제 2독서 | 히브리서 5,7-9

복음 환호송 |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요한 12,20-33

영성체 후 묵상 |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기도와 탄원을 올리십니다. 주님을 섬기려는 이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Among those who went up to worship at the festival were some Greeks. These approached Philip, who came from Bethsaida in Galilee, and put this request to him, 'Sir, we should like to see Jesus.' Philip went to tell Andrew, and Andrew and Philip together went to tell Jesus. Jesus replied to them: 'Now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I tell you, most solemnly, unless a wheat grain falls on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grain; but if it dies, it yields a rich harvest. Anyone who loves his life loses it; anyone who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the eternal life. If a man serves me, he must follow me, wherever I am, my servant will be there too. If anyone serves me, my Father will honour him. Now my soul is trouble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But it was for this very reason that I have come to this hour. Father, glorify your name!' A voice came from heaven, 'I have glorified it, and I will glorify it again.' People standing by, who heard this, said it was a clap of thunder; others said, 'It was an angel speaking to him.' Jesus answered, 'It was not for my sake that this voice came, but for yours. 'Now sentence is being passed on this world; now the prince of this world is to be overthrown. And when I am lifted up from the earth, I shall draw all men to myself.' By these words he indicated the kind of death he would die.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래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Words of Pope Francis

“Some people cannot overcome the embarrassment of going to confession. Feeling ashamed means you are not happy about what you have done. This is a good sign, but never allow shame to imprison you, because God is not ashamed of you. He always loves you.”

<마르코 4장 1절-9절>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물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 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는 말씀과 함께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 선포 활동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릅니다. 열두 명의 제자를 뽑으시어 갈릴래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바로 당신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을 찾아온 이들이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쉽게 알아듣고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르침 가운데 마르코가 가장 먼저 전하는 비유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 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햇볕을 견디지 못해

바싹 말라 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 전혀 다른 문화와 지역에 사는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 ‘도대체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왜 씨를 아무 곳이나 함부로 뿌리는 거지? 농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인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파종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우, 밭을 갈아 이랑과 고랑을 만든 다음, 고랑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짓거나 아예 못자리에서 모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 그 모를 논에 직접 옮겨 심는 이앙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씨앗을 바람에 날리면서 밭에 뿌리거나 나귀 등에 씨앗 자루를 실어 놓고 자루 밑에 구멍을 뚫은 뒤 나귀를 돌아다니게 하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돌이 너무 많아 경작이 어려웠기 때문이고, 또 땅을 개간하여 농토를 만들어도 땅속에 돌이나 가시나무 잔뿌리가 많아 파종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은 길가나 돌밭,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그저 자신이 뿌린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 뿌리를 잘 내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배움이 높건 낮건, 시간이 많은 적든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질지 모릅니다. 다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지닌 놀라운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른 배를 넘어 백 배, 아니 그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밭은 어떠합니까?

공지 사항

1. 사순시기 고해성사 순서 안내

정해진 시간 이외에도 고해성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시기 고해성사 - 소공동체 반 순서>

- * 3월 17일(주일) - 루카반
- * 3월 24일(주일) - 요한반

2. 교구 성유 축성미사 안내

3월 25일(월)에 St.Christopher Cathedral 에서 크리스토퍼 대주교님께서 집전하시는 성유축성미사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미사 참례가 가능합니다.

- 일시: 3월 25일(월), 5:00PM
- 주소: St.Christopher Cathedral, 55 Franklin Street Forrest ACT 2603

3. 사순시기 본당 성주간 전례 안내

<한인성당 미사>

- 주님 수난 성지주일: 3월 24일(주일), 3:00PM
- 주님 만찬 미사: 3월 28일(목), 7:00PM
- 주님 부활 대축일 : 3월 31일(주일), 3:00PM

* 아래 성 금요일과 파스카 성야는 로컬 성당과 함께 St.Matthew's Church, Page에서 봉헌됩니다.

- 성금요일 수난예식(영어): 3월 29일(금), 3:00PM
- 파스카 성야 미사(영어) : 3월 30일(토), 7:00PM

4. 부활대축일 세례식 안내

부활대축일 미사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이 태어나는 박서영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3월 3일	유아·청소년: 32명	성인: 64명
3월 10일	유아·청소년: 22명	성인: 55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3월 17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다음주 (3월 24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3월 17일)	마르코반
다음주 (3월 24일)	마태오반

| 우리들의 정성 | (3월 9일 ~ 3월 15일)

봉 헌 금	\$309			
교 무 금	\$505			
강원혜	김요한	김정수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조성희	주정자			

| 기도 지향 |

- *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을 위해
-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 예비자교리 중인 박서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